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4

Start-up Trend Repor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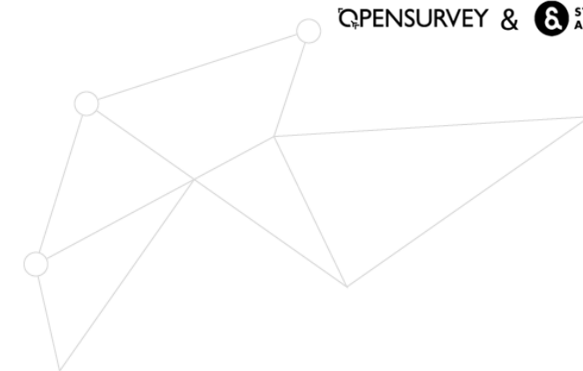


OPENSURVEY &  STARTUP
ALLIANCE

A. 조사개요	3
B. 조사결과 요약	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5
D.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19

Start-up Trend Report 2014

A. 조사개요



조사제목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4
조사목적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의 인식과 현실을 파악
조사대상	<p>a) 창업자 17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정보기술, 지식서비스 -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대표 및 임원) - 연차: 창업 1년 이내 34명, 1년 ~ 3년 이내 60명, 3년 이상 80명 <p>b) 대기업 재직자 8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10대 그룹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한진,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 대상: 사원 ~ 임원 - 연차: 재직 3년 이내 200명, 3년 ~ 7년 이내 300명, 7년 이상 300명
조사기간	2014년 10월 30일 - 11월 1일



Start-up Trend Report 2014

B. 조사결과 요약

창업자의 생각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인해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느낌. 성공사례가 많아지며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상함. 생태계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전체 분위기에 비해 다소 못 미친다는 생각.

창업 후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외부 투자유치였고, 창업에 성공하려면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제품개발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인의 소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회사 운영관련 정보는 주로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하고 있음.

절반에 가까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구글과 삼성이 스타트업 지원에 앞서는 기업이라 느낌. 또한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산정되는 기업가치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

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중소기업청 창업넷이 비보조 인지도가 가장 높고, 입주 선호도는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가 선두임. 또한 엔젤투자회사의 경우 본엔젤스가 비보조 인지도가 가장 높으나 선호도 측면에서는 더벤처스가 소폭 앞섬. 그리고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비보조 인지도와 선호도 모두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대기업 재직자의 40%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배임.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서비스로는 배달의민족,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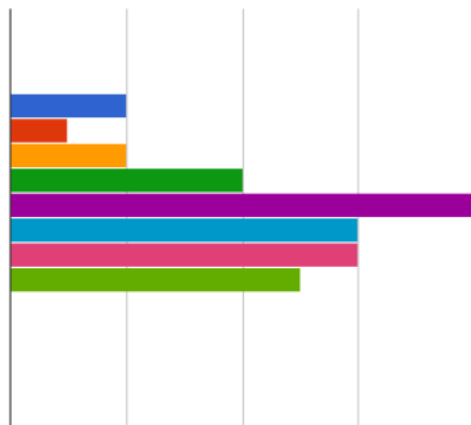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100점 만점에 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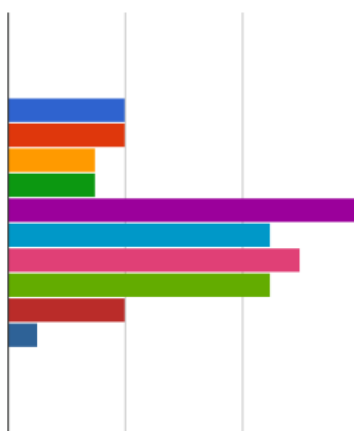
전체 평균은 54.87점이고 연차 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만, 통계적으로 큰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구간과 무관하게 최빈값이 50점으로 동일했는데, 창업자 사이에서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절반씩 섞여있는 셈입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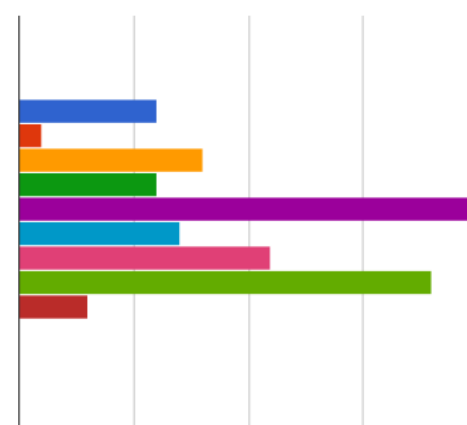
중간값 55 - 평균값 53.4 - 표준편차 19.6

창업 1년차~3년차 (n=60)



중간값 60 - 평균값 56.1 - 표준편차 22.1

창업 3년차 이상 (n=80)



중간값 50 - 평균값 54.6 - 표준편차 22.4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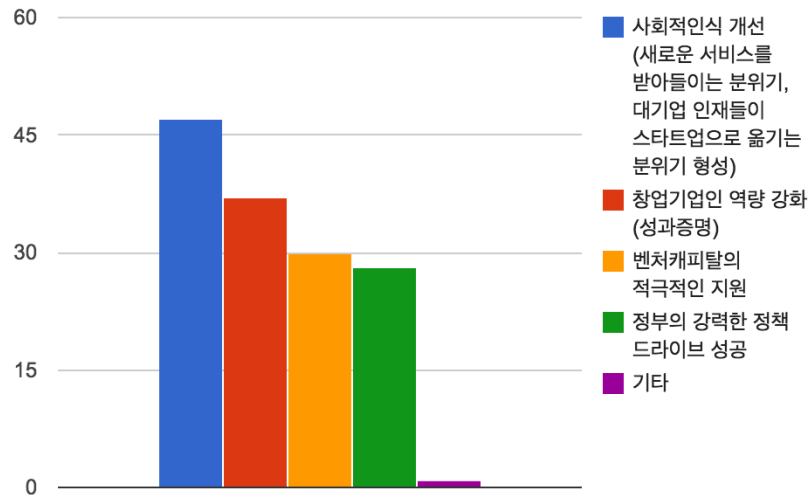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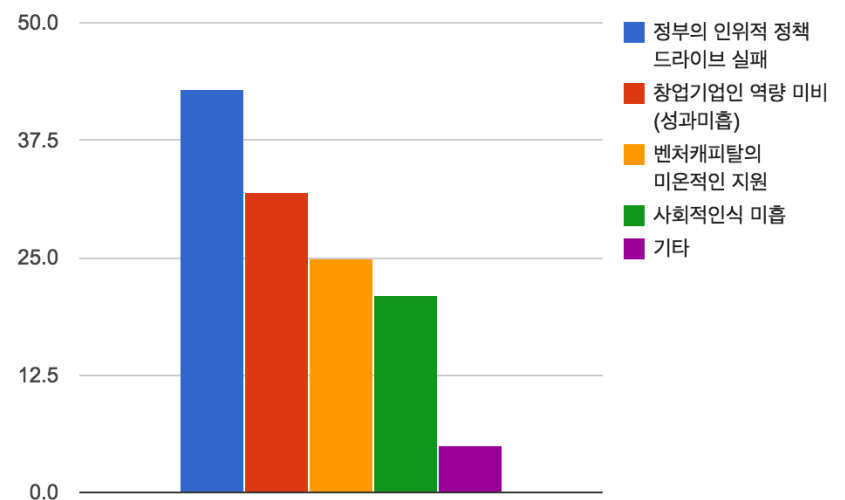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고 보여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했을 때, 전년 대비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31%)은 반대(28%)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부정적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시기의 창업자 사이에서 동일한 답변이 나왔는데, 사회적 인식개선과 정부의 인위적 정책 드라이브 순서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느낀 이유 (n=54)



부정적으로 느낀 이유 (n=48)



Q.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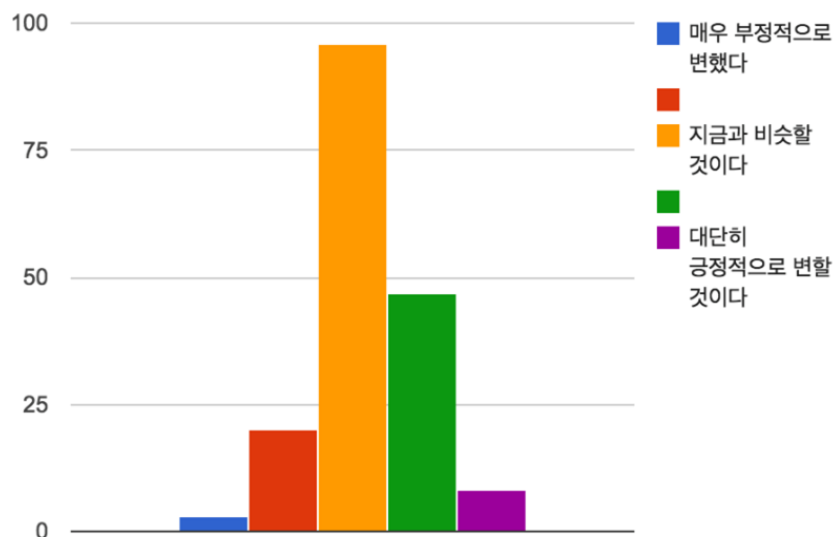
Q. 긍정/부정적으로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요.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성공사례가 많아지며 보다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함

긍정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스타트업 성공/투자회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사회적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변화의 근거로는 대기업/정부의 벤처기업 서비스/기술 बे끼기에 대한 우려와 투자 자금이 급증하며 버블을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컸습니다.



“대기업에서의 가로채기와 더불어 정부에서조차도 벤처회사에서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로채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벤처기업으로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알리고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고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서 말한 상황들로 인하여...”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도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스타트업과 관련된 모임과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늘고 있고, 창업에 손을 대는 대학생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 Q. 앞으로 일년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거라 생각하십니까?
 Q. 긍정/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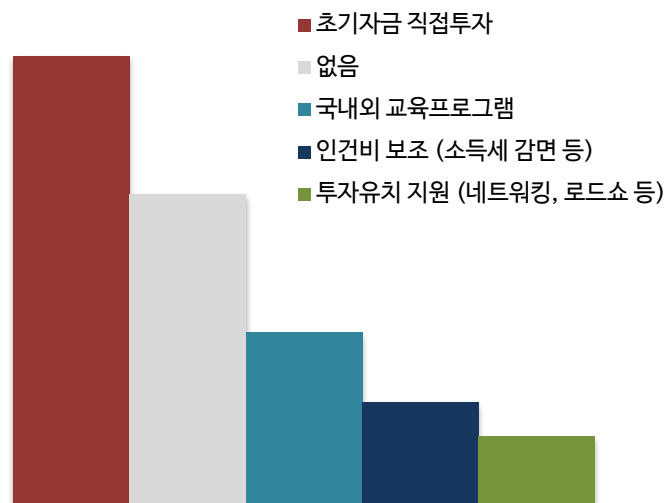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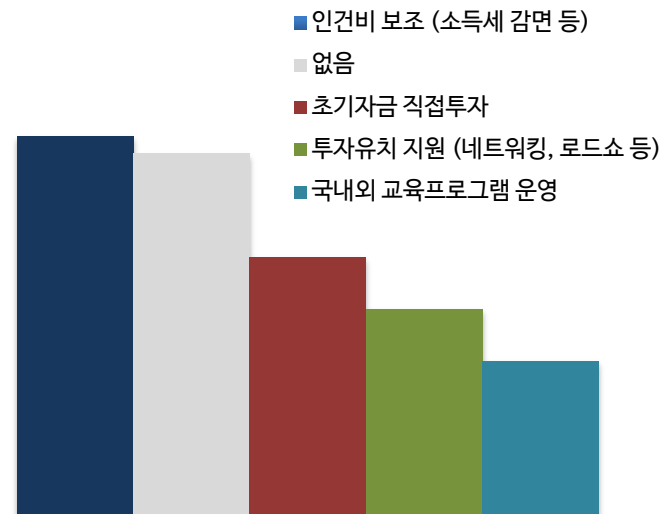
생태계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100점 만점에 43점

창업 1년차 미만의 경우 36.38점, 1~3년차, 3년차 이상은 순서대로 43.35점, 44.38점을 기록하며 초기기업일수록 정부 정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에 대한 답변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었는데, 1년차 미만은 초기자금 직접투자를, 1년차 이상은 모두 인건비 보조(소득세 감면 등)를 꼽았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창업 3년차 이상 (n=80)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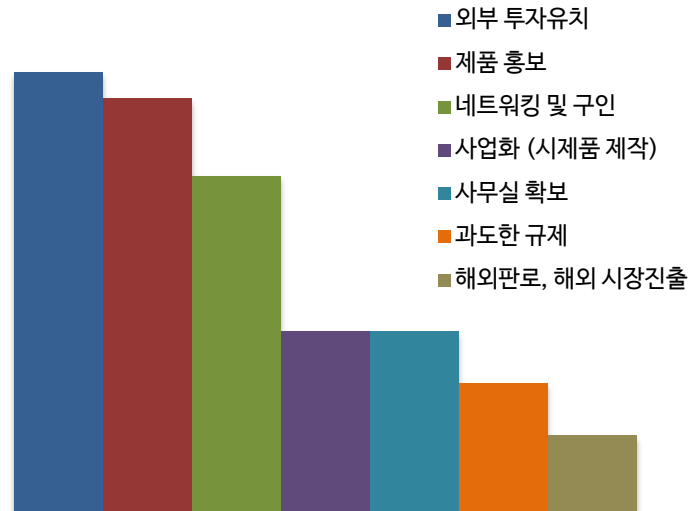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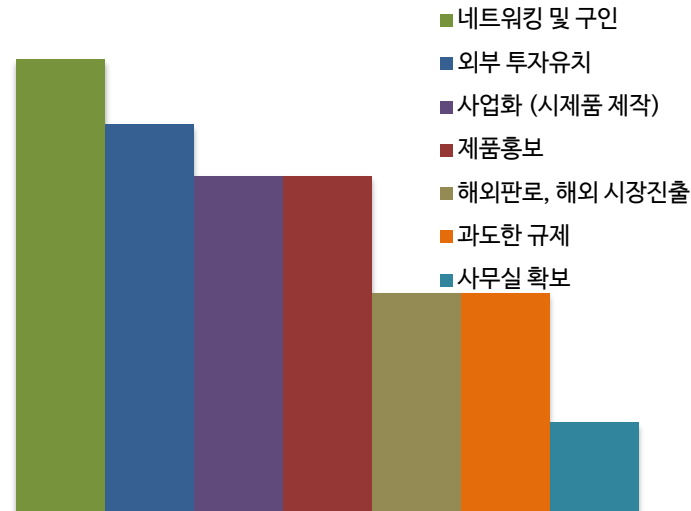
창업 초기에 가장 힘든 건 투자유치, 하지만 갈수록 구인이 더욱 어려워짐

창업자는 3년차까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을 외부 투자유치로 꼽았습니다만, 3년차 이상인 경우 네트워킹 및 구인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연차에 따라 어려움이 달라지는 이유에는, 적시에 투자유치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3년차 미만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반영되는 ‘자연선택’이 반영된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창업 3년차 이상 (n=80)



Q. 창업 후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을 두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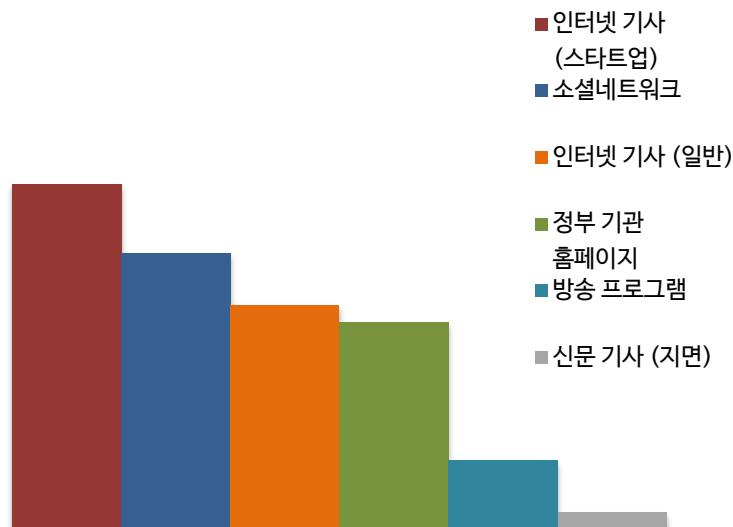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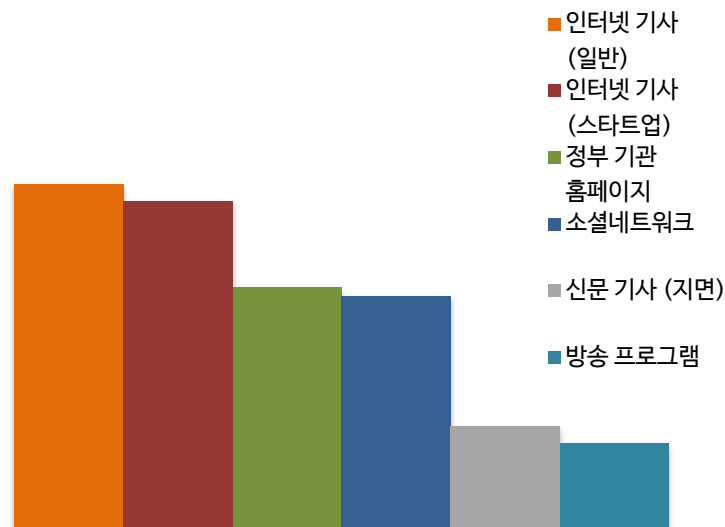
신문/방송보다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획득

창업 시기와 무관하게 전통적인 매체(신문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획득 비중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차 미만과 3년차 이상은 스타트업 전문 인터넷 미디어가 주된 정보획득 채널이었고, 1년차~3년차 창업자의 경우는 소셜네트워크가 가장 주된 채널로 밝혀졌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1+2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80, 1+2순위)



Q. 창업 및 스타트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채널 순으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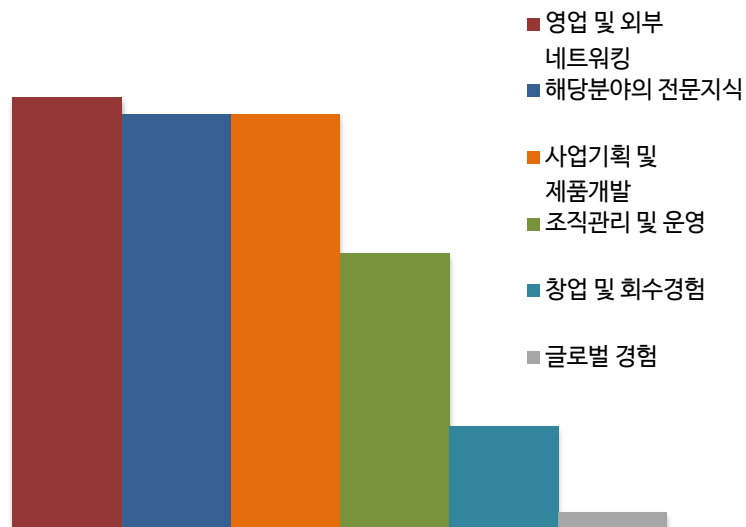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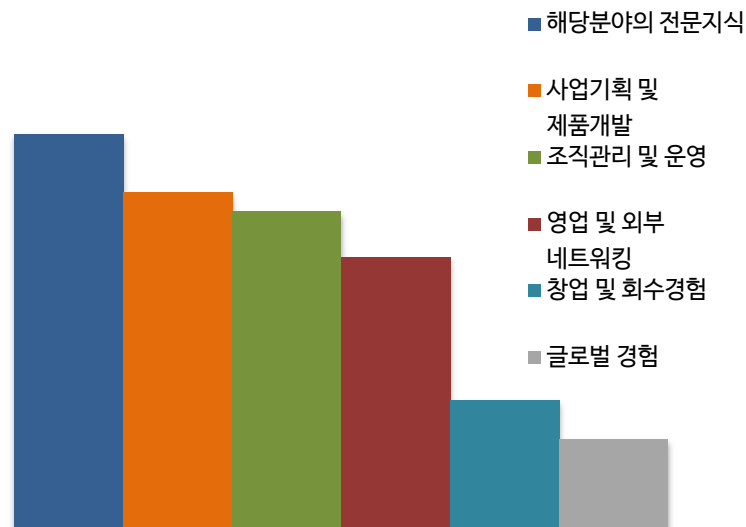
창업에 성공하려면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제품개발 능력이 가장 중요

모든 시기의 창업자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1순위로 꼽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역량의 경우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1년차 이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 영업 및 외부 네트워킹 > 조직관리 및 운영 순서로, 1년차 이상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 영업 및 외부 네트워킹 순서로 꼽았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1+2+3 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80, 1+2+3 순위)



Q.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창업기업인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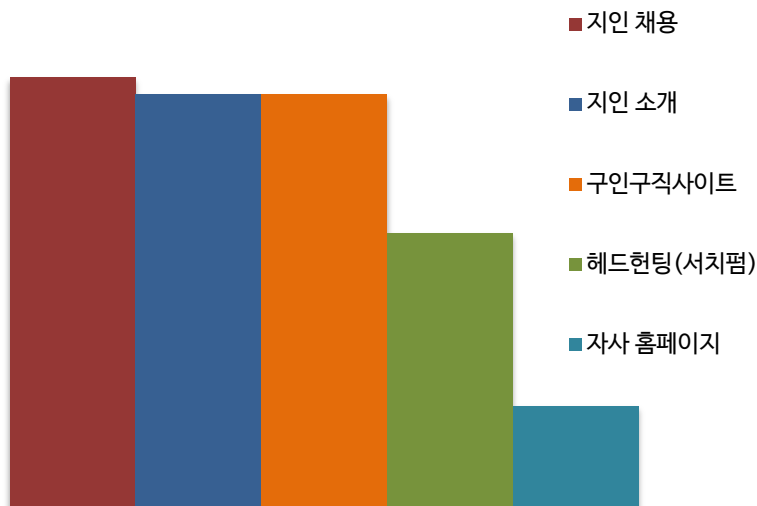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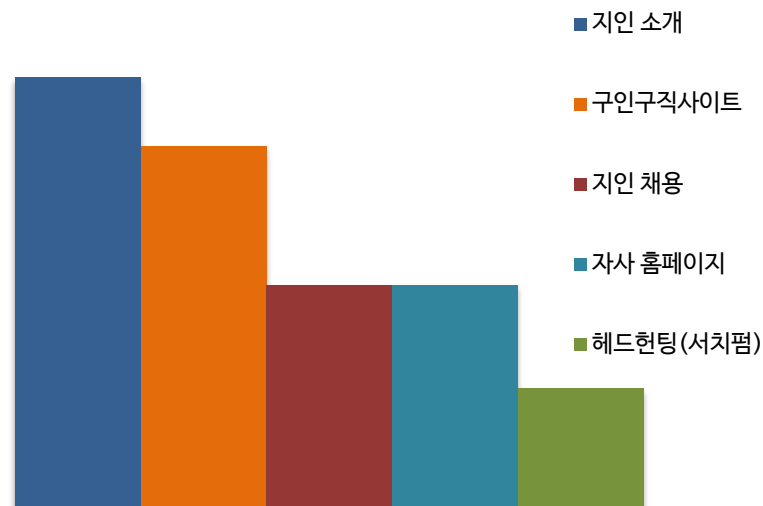
지인의 소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남

창업 후 시기와 무관하게 지인의 소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구인구직 사이트, 서치펌 등 전문서비스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1 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80, 1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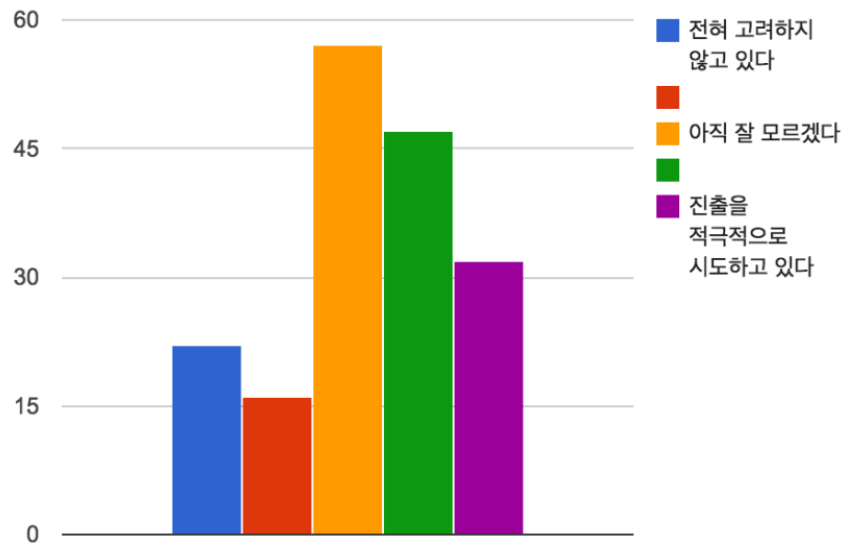
Q. 창업 후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재채용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개 골라주십시오.

Start-up Trend Repor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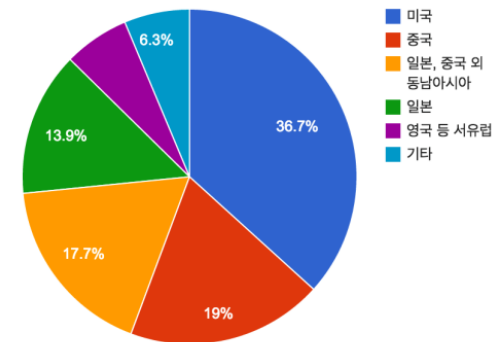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고(45%), 고려하지 않는 비율의(22%) 두 배가 넘었습니다. 가장 선호 되는 진출국가는 미국이었고, 그 뒤를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이 잇고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는 창업자는 사업모델 자체가 국내 시장에 맞춰져 있는 것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국내시장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 기업의 해외시장의 진출보다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해외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를 기대하고...”



Q. 현재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중인 지역을 한 곳 선택해주시요.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구글과 삼성이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느끼고 있음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구글(20명), 삼성(17명), SK (9명), 현대 (5명), 소프트뱅크 (4명), 네이버 (4명) 순서로 꼽혔습니다. 다만 1위(구글)의 비보조 인지도가 1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순위권 안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수준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국내에서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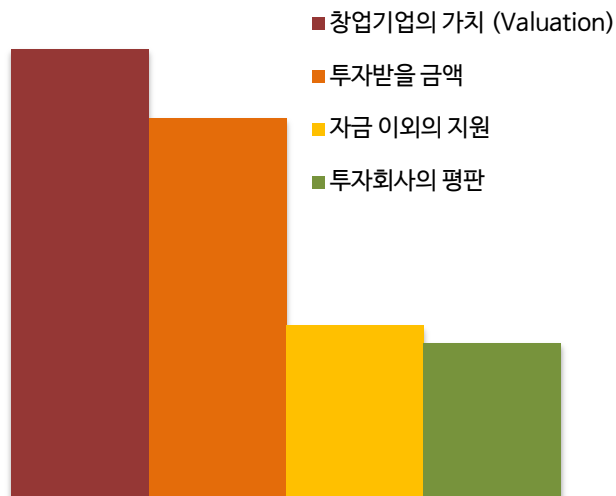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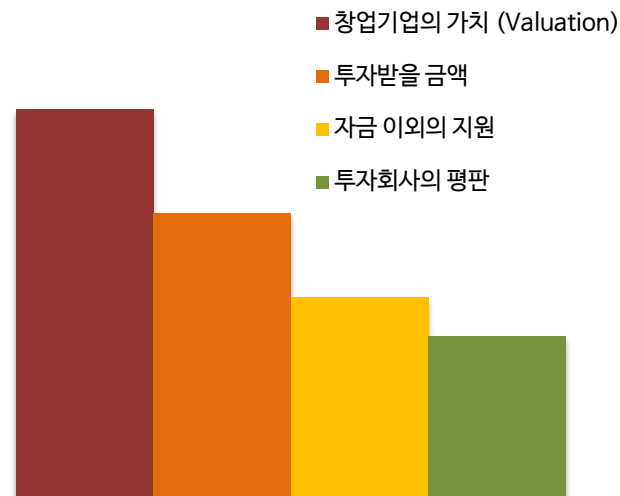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산정되는 기업가치와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창업 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산정가치 (Valuation)과 투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4, 1+2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80, 1+2순위)



Q.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가지 골라주십시오.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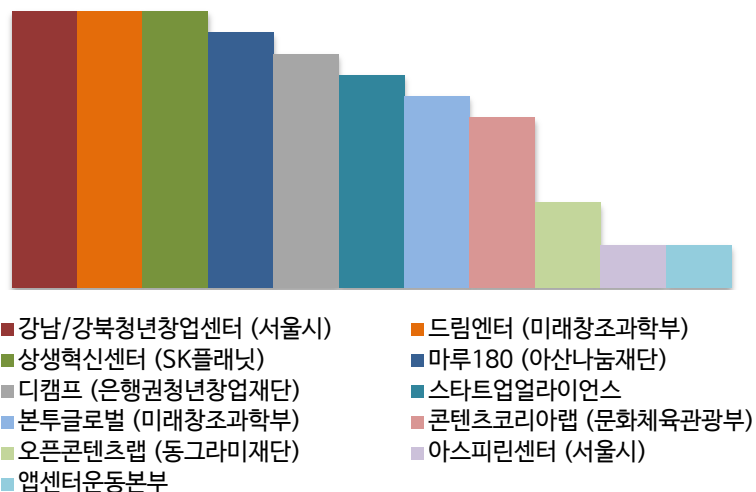
창업지원센터 비보조 인지도*는 중소기업청, 입주 선호도는 상생혁신센터

비보조 인지도: 중소기업청/창업넷 > 디캠프 > 기술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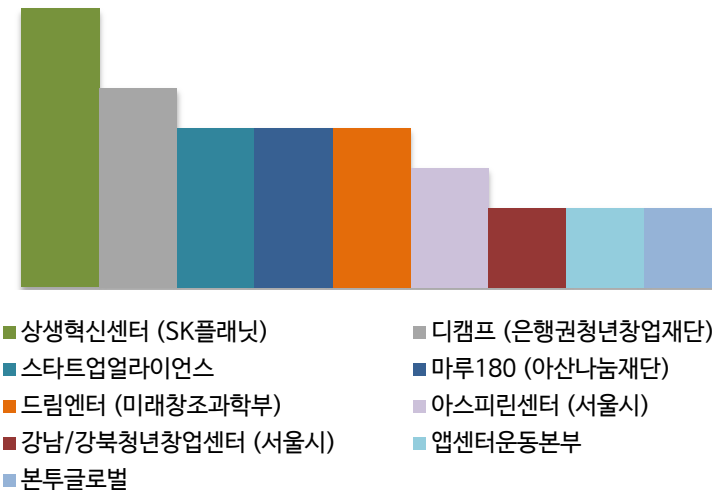
보조 인지도: 강남/강북청년창업센터 (서울시) > 드림엔터 (미래창조과학부) > 상생혁신센터 (SK플래닛)

입주 선호도: 상생혁신센터 (SK플래닛) > 디캠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조 인지도** (n=34)



입주 선호도 (n=34, 1 순위)



Q. 창업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입주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를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비보조 인지도 - 보기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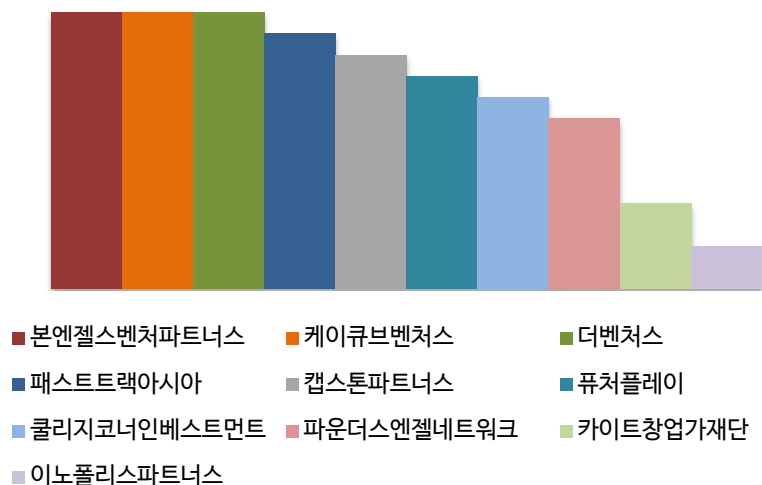
엔젤투자회사 비보조 인지도*는 본엔젤스, 투자유치 선호도는 더벤처스

비보조 인지도: 본엔젤스 > 캡스톤 > 프라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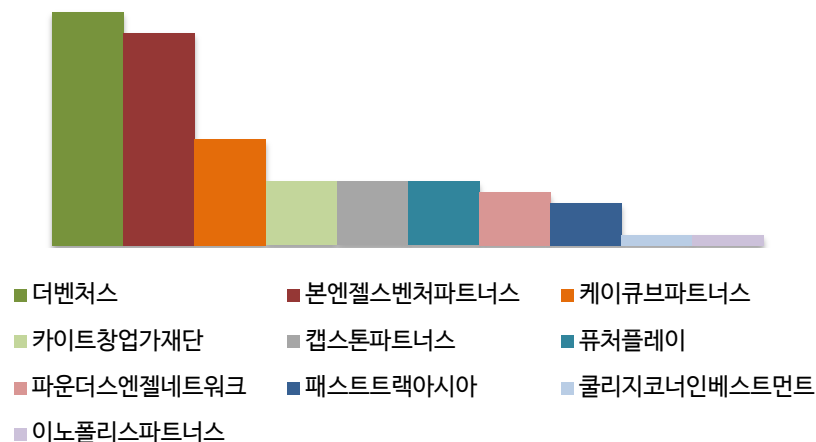
보조 인지도: 본엔젤스 > 케이큐브벤처스 > 더벤처스

투자유치 선호도: 더벤처스 > 본엔젤스 > 케이큐브벤처스

보조 인지도** (n=94)



투자유치 선호도 (n=94, 1 순위)



Q. 엔젤투자회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투자 받고 싶은 엔젤투자회사를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비보조 인지도 - 보기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Start-up Trend Report 2014

C.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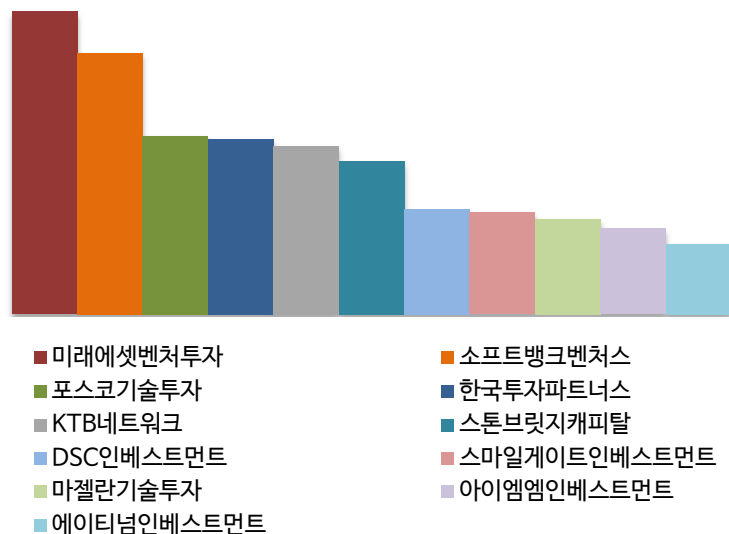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비보조 인지도*와 투자유치 선호도는 모두 소프트뱅크벤처스

비보조 인지도: 소프트뱅크벤처스 > 본엔젤스파트너스 > 스톤브릿지캐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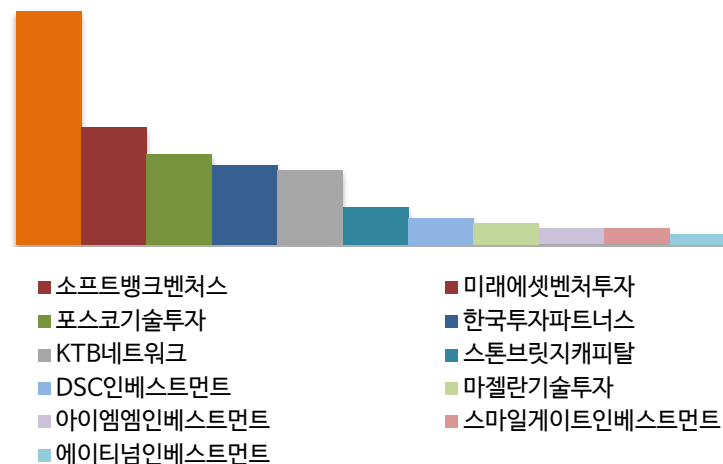
보조 인지도: 미래에셋벤처투자 > 소프트뱅크벤처스 > 포스코기술투자

투자유치 선호도: 소프트뱅크벤처스 > 미래에셋벤처투자 > 포스코기술투자

보조 인지도** (n=140)



투자유치 선호도 (n=140, 1 순위)



Q. 벤처캐피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투자 받고 싶은 벤처캐피탈을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비보조 인지도 - 보기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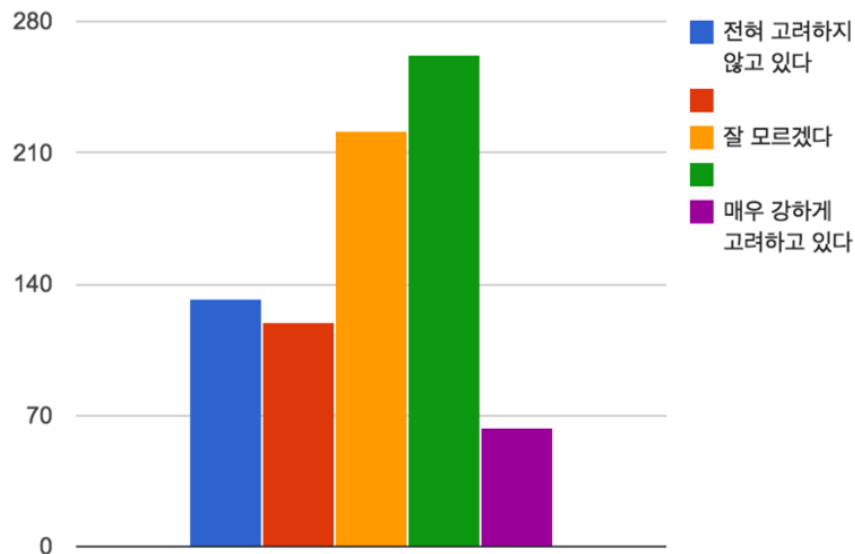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D.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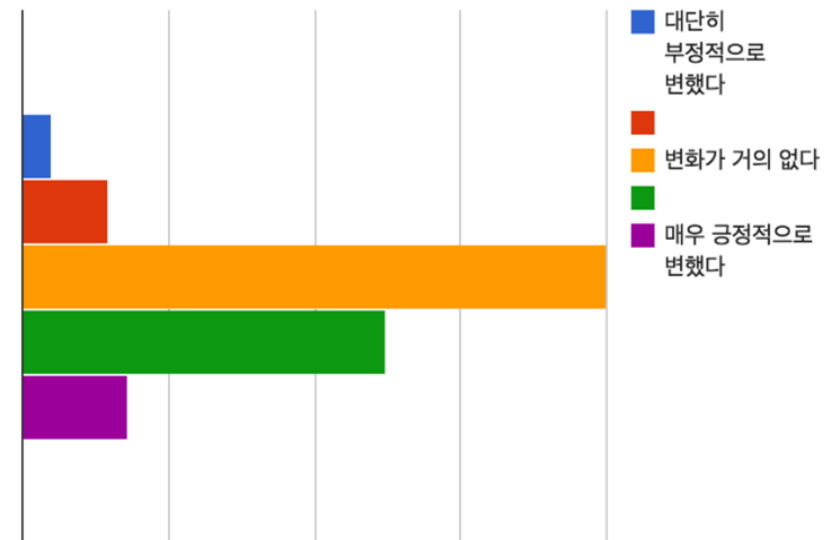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40%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직접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이(41%)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32%) 다소 높았으며,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40%)이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10%)보다 네 배 가량 높았습니다. 또한 IT/지식서비스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3년 차 이상 7년차 미만 구간에서 3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f. 3년차 미만 17.6%, 7년차 22.1%)

창업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800)



창업고려수준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N=800)



Q. 최근 본인이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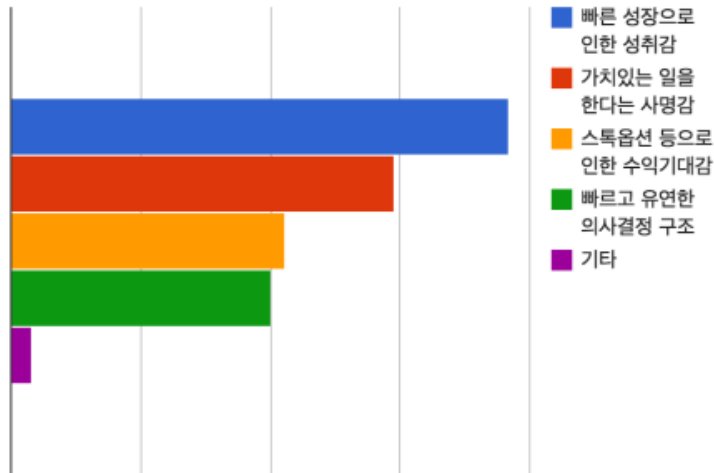
Start-up Trend Report 2014

D.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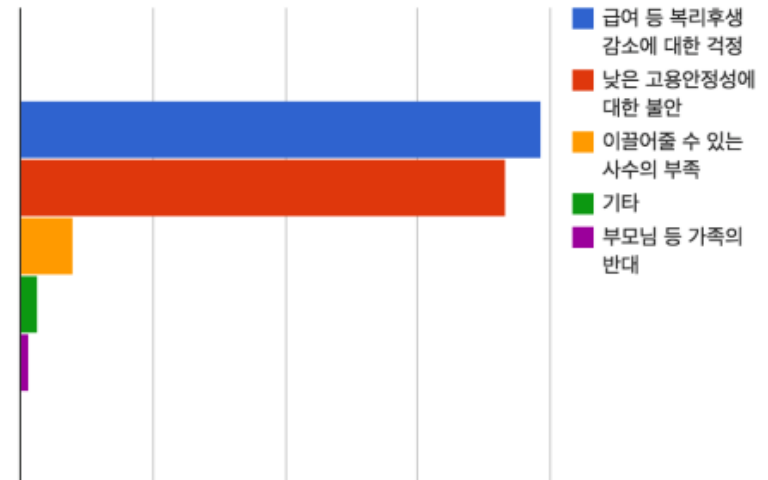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배

대기업 재직자들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이(35%)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15%)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이(34%) 부정적인 의견보다(10%)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급여 등 복리후생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긍정적 고려이유 (n=277)



부정적 고려이유 (n=123)



Q. 최근 본인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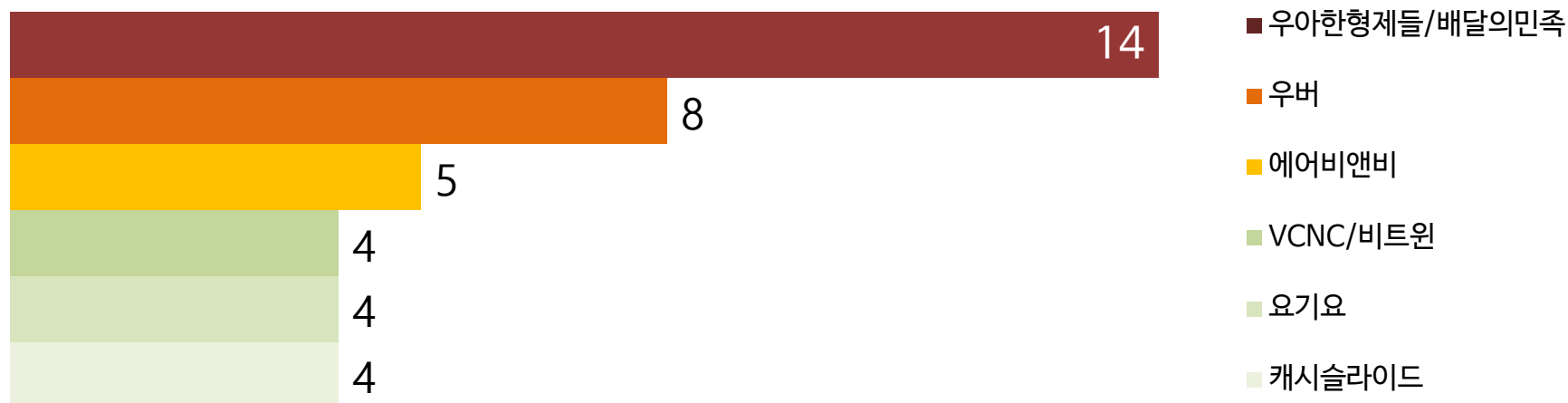
Q.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개만 골라주십시오.

Start-up Trend Report 2014

D.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서비스는 배달의민족과 우버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85%)인 것을 보면, 여전히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 중 상장사와 대기업을 제외했을 때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14), 우버(8), 에어비앤비(5), VCNC/비트윈(4), 요기요(4), 캐시슬라이드(4) 순서로 비보조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 혹은 서비스를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없다'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4

OPENSURVEY &  STARTUP
ALLIANCE

리포트 및 관련자료 문의

data@opensurvey.co.kr

